

B-4 흡연이 치주조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임상적 연구

한동기*, 김성조

부산대학교 치과대학 치주과학교실

흡연과 치주질환 간에 어떠한 연관이 있을 수 있음을 제기하는 다수의 연구보고가 있으나, 이에 관한 명확한 근거가 제시된 바는 없다. 이에 본 연구에서는 흡연이 치주조직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기 위하여, 전신적으로 건강한 성인 남자를 연구대상으로 하여, 치태 및 치석의 축적, 치은의 염증, 치주낭심도 및 부착수준 등을 측정하였으며, 이를 흡연자군과 비흡연자군으로 나누어 전체 연령 및 각 연령군에서 흡연 및 흡연정도 그리고 흡연기간이 치주조직의 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관찰하였다.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, 전반적으로 흡연자군이 비흡연자연군에 비해 치태 및 치석 축적 그리고 치은의 염증이 더 심하였고, 더 깊은 치주낭심도 및 부착수준을 보였으며, 고연령군에서 그리고 흡연의 정도가 심하고 흡연기간이 길수록 이러한 흡연자군과 비흡연자군 사이의 제반 지표의 차이가 더 현저한 경향을 보였다.